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선정...준공시 1시간 단축

전남도, 38.9km 건설에 1조5965억원 소요 전망

예타 통과 시 2단계 구간 '강진~완도' 21분 단축

전남도가 서남권 도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강진~완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예타 대상 선정은 전남도가 그간 사업의 당

위성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얻은 결과물이다. 20년 이상 끌어온 도민 숙원사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강진 선형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8.9km 구간에 1조5965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예타를 통과하면 강진에서 완도까지 이동시간이 21분(64분→43분) 단축돼 경제·의료·문화·교육·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전남 서남부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강진~완도' 전체 구간으로 보면 기존 2시간 1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60분(1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당초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한 번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경제성(B·C)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7년 착공한 1단계 광주~강진(51.1km) 구간은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전남 서남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준공 이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용일 기자**

전남TP, 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척...교두보 마련

우호교류 업무협약 통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TP는 지난 17~18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국-태국 에너지위크'에 참석해 전남 에너지기업의 태국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남 지역사업평가단이 공동 개최했다.

에너지위크에서 전남TP는 태국의 대

표적인 투자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와 신재생에너지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와 연계해 실무기관 간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남에너지기업 7개사와 광주에너지기업 4개사는 사업설명회와 태국 내 기업·기관 등과 다자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제안, 공동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

을 모색했다.

그 결과 이번 행사에서 총 98건, 91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달성하고, 100만 달러 합의각서(MOA) 1건, 1892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 12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TP와 기관들은 행사 기간 동안 현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7일엔 전남태국국가연구위원회를 방문해 수소·풍력·태양광분야 기술협력과 전문가 인력교류 등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을 타진했다.

18일엔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태국 우수명문대학인 쥘랑롱콘 대학교를 방문해 한국의 직류전송시스템과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협의하고 향후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키로 논의했다.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한국-태국 에너지위크"를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된 전문인력 확보를 확대하고, CMVL과 인니, 말레이시아연방 시장 개발을 위한 협력사 발굴·구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한·독 수교 140주년...독일서 남도의 맛과 멋 알린다

전남도, 한국종합 홍보 행사에 자치단체 대표로 참가

전남도가 유럽인들에게 남도의 맛과 멋을 알린다.

전남도가 25~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박물관강변축제(Museumsuferfest)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한국 종합 홍보 행사(YouR Korea Festival)를 공동 개최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크푸르트가 대한민국을 강변축제의 주빈국으로 초청한 가운데 전남도가 우리나라 자치단체를 대표해 참가한다.

전남도와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한·독 두 나라의 우호관계 강화와 문화·예술·관광·음식 등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전남지역 기업의 수출상품 홍보 지원을 위해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

전남도는 3일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독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한국의 콘텐츠(K-Contents)를 활용해 우수 농수산식품과 관광자원, 전통예술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남

의 맛과 멋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관광객 유치 활동에도 본격 나선다. 축제 첫날인 2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에 참가해 현지 여행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의 관광자원을 알린다.

축제 기간 프랑크푸르트 시내 로스마르크트 광장 일대에서는 전남 관광 홍보관도 운영한다.

행사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박장한 전남도 정무부지사,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토마스 페다(Thomas Feda) 프랑크푸르트 관공사 대표, 엘케 포이틀(Elke Voitl) 프랑크푸르트 부시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 축하공연으로 전남도립극단의 부채춤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도 펼쳐진다.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는 매년 8월 말 마인강변에 늘어난 27개의 박물관이 참여, 12개 무대, 400여 부스가 설치돼 각종 공연·음식·전시를 선보이는 지역 최대 야외 축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추석맞이 9월 한달간 상생카드 10% 할인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대상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달간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구매한도는 체크·신용카드 통합 월 50만 원이다.

이번 특별할인은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의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다. 월 자동충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할인 기간 자동으로 특별할인율이 적용돼 충전된다.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019년 최초 발행이후 2023년 7

월말 현재까지 3조7100억 원 이상 발행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0.25~0.85%)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주최회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추석맞이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 느단 707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서영민 (680815-1621711)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비아로24번길 3층 1층 (비아동)

위 망 서영민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8월 24일

공 고 인 : 서정민
주 소 : 광주 광산구 비아로 185, 105동 114호(비아동, 하남지구호반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8월 17일
공 고 기 간 : 2023. 8. 24 ~ 2023. 10. 24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 느단 72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김영주 (610202-2113712)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70번길 88-3, 201호(월계동)

위 망 김영주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8월 24일

공 고 인 : 강소정
주 소 :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70번길 88-3, 201호(월계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8월 17일
공 고 기 간 : 2023. 8. 24 ~ 2023. 10. 24

나주시 공고 제2023-1429호

**영산강 나주시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39조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 나주시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실시계획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나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산강 나주시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일원(국가하천, 영산강)
다. 사업규모
- 제방보축 : 6개 지구(20,987km)
라. 사업시행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분	내용	비고	
공람기간	2023년 8월 24일 ~ 9월 20일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나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1개소
	함평군	나주시청(안전관리과), 풍산면행정복지센터, 동강면행정복지센터	3개소
	무안군	함평군청(안전관리과), 학교면사무소	2개소
	영암군	무안군청(안전총괄과)	1개소
정보통신망	영암군청(군민안전과), 서호면행정복지센터, 시종면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함평군청·무안군청·영암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tass.go.kr) 홈페이지	3개소	

3.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행정구역	일 시	장 소	비고
주민 설명회	나주시	2023.09.05(화요일) 13:30	공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2023.09.05(화요일) 10:30	동강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함평군	2023.09.05(화요일) 16:00	하나대문화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
		2023.09.06(수요일) 11:00	시종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영암군	2023.09.06(수요일) 14:00	서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4. 주민의견 제출
가. 주민의견 제출 대상 : ① 당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② 관계전문가 등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자
나. 제출기간 : 공람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라. 제출의견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등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안전관리과(☎ 061-339-7862),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062-410-5836), 도화엔지니어링(☎ 02-6323-43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